

[기획연재 2] 구속사와 선교
구속사적으로 본 한국교회와 이스라엘 선교

김해리 권사 / 1994

구속사적 입장에서 볼 때 일반 역사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속사 계시의 장이요 무대이다. 역사속의 모든 민족, 문화, 언어, 사상, 정치적 이데올로기 등은 궁극적으로 구속사 성취의 수단으로 존재하고 있다. 즉 이 모든 것은 구속사 성취의 수단으로써 잠정적인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을 뿐이며 역사의 중심을 구속사인 것이다.

성경에서는 세상 역사를 이상과 짐승으로 계시하고 있다. 다니엘서에서는 큰 신상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7 마리 짐승으로 묘사하였다. 여기서 5 마리 짐승은 이미 망하였고 사도요한 당시는 6 번째 짐승이며 앞으로 한 마리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였다. 지금까지 나타난 패권주의 국가인 애굽, 앗수르, 바벨론, 메대와 파사, 헬라, 로마는 6 마리 짐승이었고 이제 마지막 패권주의 국가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 역사의 존재는 택자 구원의 수단, 보호의 수단, 징계의 수단으로 존재한 일시적 존재이었다. 이것들은 구속사의 목적이 아닌 수단이었으며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이었다. 즉 세계사의 중심은 구속사이며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타락과 함께 여인의 후손으로 계시되었고 셈으로부터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자손을 구원할 메시아로 계시되었다. 출애굽 사건의 지휘자로, 떨기나무 위의 불로서, 구름기둥, 불기둥, 홍해구원, 치료하는 나무, 만나, 반석, 아론의 싹난 지팡이, 늦땀, 도피성 등으로 자신을 계시했다. 여호수아를 통한 계시가 있었다. 왕정시대에 특히 다윗의 후손인 왕으로 활동하신 예수가 계시되었다. 로마시대와 그 후기에 나타난 예수 운동은 바벨론에서 해방자, 페르샤에서의 선민 구원자, 헬라 제국의 작은 뿔에서의 구원, 로마제국에 나타난 세계선교의 총재로서 예수가 주역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제국 시대에 성육신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운동은 교회를 통하여 전개해 나간다. 이 교회운동의 양태는 여러시대 여러모양으로 나타났다. 구약의 교회운동은 에덴동산에서 희생제물로, 족장시대는 제단으로, 모세시대 이후에는 성소로, 왕정시대에는 성전으로, 포로이후 시대는 회당으로, 신약시대에는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우주적 교회를 세우셨다. 이 운동은 예수 재림시에 완성될 것이다.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여 모든 사람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육의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된 교회에 입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교회건설과 복음운동에 동참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사역이다. 따라서 교회운동은 선교운동이며 구속사의 전개는 선교활동으로 이루어진다.

*** 출처 - 온누리신문**